

## 진통하는 농촌사회

김 조 년 (교수, 한남대 사회학)

### 내가 살던 고향은

지금은 고향이라고 할 만큼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곳이 온존할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옛날 같으면 심심산천이라면 몇 천년을 지난 뒤에 가더라도 손 하나 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옛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래서 자주 불렀던 노래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서니, 산천의구(山川依舊)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하는 노랫말이 허사라고 생각했었다.

내가 살던 시골은 말 그대로 시골이었고, 그곳에서 나는 특산물이 나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때문에 달라질 것 같은 인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넓은 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은 골짜기나 높은 산이 있어서 빼어난 풍광을 가지고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가능성도 없었고, 관광지로 개발될 만한 곳도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냥 그렇고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시골이었기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매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어떤 유혹을 느낄 만큼 멋진 곳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가도 그곳은 그곳으로 그냥 그렇게 남아 있어서 내가 놀던 그날을

떠올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되돌아보고 생각하니 내가 그 동안, 아니 그 당시 참으로 헛된 꿈을 아무지게 꾸고 있었구나 생각한다.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나무도 바위도 물도 노래도 놀이도 다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보였다.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던 풍경들이 변화된 모습에 어지럽게 흔들리고 깨져버린다.

내가 어렸을 때도 우리 동네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다. 처녀와 총각들이 밤에 몰래 도망하여 사라졌다. 비옥하지도 못한 땅, 그것도 땅 빌려 준 남에게 눈칫밥 먹으며 농사짓기가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싫었기 때문이란단다. 나중에 들으면 그들은 서울로, 아니면 큰 도시로 떠나갔단다. 명절이 되면 그들은 잠자리 날개 같은 치마에 뽀족구두를 신거나 양복에 구두를 신고 나타났다. 머리는 파마를 하였거나 하이칼라로 기름을 발라 올렸다. 얼굴은 해에 그을린 농투산이의 자국이 다 없어지고 희뿌연 하였다. 그들이 다녀간 고향 마을에는 한두 사람 씩 또 사라졌다. 그들 따라 또 도시로 갔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하면서 청년과 처녀들뿐만 아니라 아예 가족단위로 마을을 떠났다.

그러기 전 1960년대에 우리 마을에는 80호 정도의 가구에 약 350여 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박 씨네와 이 씨네가 다른 성씨에 비하여 약간 많았지만, 각성만이로서 여러 성씨들이 어울려 살았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해마다 아이들이 늘어나서 일학년 때 부르던 운동회 응원가에는 '300명 건아들'이라고 하더니 육학년이 되었을 때는 '오백 명 건아들'이라고 하였다. 그 뒤 학급수도 늘고 교실도 늘고, 삼학년까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던 분교였던 더 깊은 시골학교들은 독립된 초등학교가 되었다. 그에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늘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늘었다. 진학한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웃 면에는 새로 중학교가 생겼다.

이 때 마을도 새롭게 농사법을 개량하여야 한다거나 생산을 증대

하여야 한다는 말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에 따라서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도 4-H클럽에 들어 가슴과 손과 머리와 건강을 이용하여 마을을 새롭게 하는 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손을 들어 네 개의 H를 말할 때는 시대의 사명을 그 작은 몸에 다 짊어지는 듯하였다. 새로운 씨앗을 공동으로 개간한 산비탈 밭에 심어도 보았고, 집집마다 텃밭에 심기도 하였다. 자주 만나서 회의도 하고, 도량을 깨끗이 하거나 고샅을 쓸기도 하였다. 퇴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농사가 뜸한 여름에는 모두가 산에 올라가서 풀을 베어다가 두엄 자리에 쌓았다. 변소에서 똥과 오줌을 퍼다가 그 위에 붓고 폭 썩혔다. ‘금비’ 대신에 퇴비가 많으면 농사를 더 잘 짓는다고들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집집마다 짓는 농사 량에 맞게 퇴비량이 배당이 되어 그것을 채워야 했다. 그 때 속이는 수도 참 많았다. 속에는 담뱃대나 수수깡 같은 것으로 채우고 겉만 잘 썩은 두엄으로 살짝 감추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거짓 행위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퇴비증산 운동에서도 나타났다. 얼마나 ‘훌륭한’ 거짓행위를 가르치는 현장교육이었던가?

그러다가 4·19혁명이 일어나고, 조금 지나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마을은 상당히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농어촌 고리채를 정리한다는 조치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매우 흥흥하였다. 어떤 이웃들끼리는 반목하고 오고가던 발길이 끊어지기도 하였다. 서로가 믿음 하나로 주고받던, 차용증 하나도 없이 그냥 알아서 맘으로 약속하고 오고가던 돈거래나 땅을 빌려주고 받던 풍습이 이른바 근대화화 합리화란 이름으로 몽땅 뒤집어지게 됐다. 이제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던 모습이 금방 냉랭하게 변해버렸다. 조상들의 지혜가 하루아침에 명칭하고 어리석고 법에도 없는 쓰잘 데 없는 비공식 행위가 되고 말았다.

이때부터 국가는 강화되었고, 모든 마을도 국가가 지도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야 했다. 학교와 가정과 마을과 들과 산과

논과 밭에도 군대식 명령이 주인 행세를 하였다. 초가가 걷히고 슬레이트가 덮이며, 돌과 흙과 자갈로 이루어졌던 실개천과 농로는 시멘트 바닥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돌과 흙과 짚으로 만들어지던 집은 하나 둘 빠르게 사라지고, 시멘트와 벽돌에 슬래브 지붕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아름답던 겨울의 눈풍경은 초가지붕이 없어지면서 함께 사라졌다. 지금은 아름답게 보일 품위가 없어져서 그런지 눈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시골에는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소리도 사라지고 뛰노는 마당도 없어졌다. 공회당이나 공터가 없어지고, 마을회관에는 찾아갈 사람이 없어졌다. 집집마다 텔레비전과 전화와 수도가 들어서고, 나무 대신에 연탄이 조금 행세하더니 이제는 석유와 가스화 전기가 모든 에너지를 대신한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석유등잔에 호롱불을 밝히고 책을 읽느라고 머리칼을 태우던 일은 노린내와 함께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처럼 돼버렸다. ‘어루화 산이야 자로 하네’ 하던 논매던 소리는 라디로나 카세트테이프로 대치된 지 오래다. 설날이나 추석날이면 꼭 몇일 씩 벌이던 마을 풍물놀이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기능보유자들이 하는 상업성 조잡한 변종 사물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대치되었다. 바가지에 온갖 반찬을 섞어 먹던 농밥은 중국식당에서 시켜다 먹는 탕수육과 캔 맥주로 바뀐 지도 오래 되었다. 지금 내 고향은 이제 그리던 고향이 아니다.

## 내가 살던 집

우리 집은 안채와 사랑채에 담배건조실로 돼 있었다. 눈을 감으면 어디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있었는지, 어떤 나무들이 어떻게 얼마의 크기로서 있었는지가 훤히 떠오른다. 내 머릿속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이 분명하다. 물론 초가지붕이었다. 해마다

이방 저 방의 구들을 번갈아가면서 다시 놓아 방에 불이 잘 들게 하였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이웃사람들과 함께 이영을 엮어 지붕을 새로 해 이었다. 산뜻한 새 벅짚으로 같이 입은 지붕은 참으로 포근하게 느껴졌다.

안채 뒤편에는 장독대에 토란밭과 몇 평 되는 남새밭이 있었다. 흙둘담 밑에는 봉숭아, 채송화, 부채난초, 접시꽃과 분꽃 그리고 국화와 박하가 번갈아가면서 피었다. 담 중간 중간에 뽕나무와 감나무와 가죽나무가 있었고, 앵두나무와 살구나무가 있었다. 초여름에는 뽕나무에 올라 까만 오돌개를 입술이 까맣게 될 때까지 따먹었다. 늦봄이나 모내기할 때 따먹던 살구는 맛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가 시고 군침이 돈다. 아, 두엄자리 옆에 서 있던 감나무. 학교만 다녀오면 책보를 방에다 집어던지고 다람쥐처럼 올라가 몇 개 씩 벌레 먹어 미리 홍시가 되어 버리는 감들을 따먹어 주린 배를 채웠다. 썩은 나무를 잘못 잡고 디더 밑으로 떨어졌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삼신할미가 받아 주어서 그랬다고 했다.

그 옆에 넓은 대나무 밭이 있었고, 겨울이면 그 속에서 참새들이 밤을 새웠다. 북쪽 담은 완전히 돌담이었다. 할머니는 옆집에 사는 소년과 청년들이 그 담 너머로 어느 집 총각의 머리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가를 보고 커나가는 것을 가늠하기도 하였다. 아, 그런데 지금도 내 맘을 환하게 하는 노란 매화울타리. 사랑채 앞, 도랑과 길을 앞으로 두고 길게 황매화울타리가 있었다. 그 사이 간간이 백매화 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 나는 지금도 활짝 핀 황매화 울타리를 생각하면 내 온 땀(맘과 몸)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낀다. 아마도 그 때 그 봄에 피던 그 꽃이 지금 내가 조금 밝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기본 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나를 환희의 세계로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 중 하나가 그것 아닐까 싶다.

그 사이에 키가 큰 옹아나무가 있었고, 높은 가죽나무를 타고 매우 오래 된 청포도덩굴이 큰 구렁이처럼 칭칭 감아 올라가 있었다. 그

앞에 봄이면 흐드러지게 노란 꽃을 피우는 골단초나무가 있었다. 사랑채 앞마당에는 소엽초가 자라고 있었고, 작은 화단에는 옥잠화가 나를 언제나 감동스럽게 했다. 마당가 매화나무 울타리 옆에 큰 벽오동 한 그루가 있었다. 항상 포로소름한 등치와 가지를 가진 나무. 어느 집 새댁이 아이를 낳았다면 어김없이 그 시아버지나 남편이 와서 산후조리에 쓰겠다고 몇 가지를 얻어가곤 하였다. 그 나무는 여름에는 마당에 그늘을 주었고, 누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약이 되어 주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겼던 나무 중 하나가 벽오동이었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나무. 바로 사랑채 앞 도랑가에 삼촌을 따라서 꺾어다 심은 수양버들 두 그루. 이것은 싱싱하게 자라서 좋은 그늘을 드리워 주어 부인들이 빨래터를 제공하여 주던 것. 40-50년이 되는 동안 거대한 나무가 되어 고향을 찾을 때면 언제나 나를 반기던 나무.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그것만은 나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리라 믿어 든든했다. 그런데 마을길을 넓힌다고 그 큰 나무를 싹둑 전기톱으로 간단히 잘라버렸다. 내 추억이 완전히 잘려 나갔다.

이제 내가 살던 그 집에 내 추억이 서린 곳은 아무데도 없다. 사랑채는 뜯겨 없어졌고, 안 채 역시 뜯기고 시멘트와 벽돌로 새로 지어졌다. 꽃나무와 과일나무들도 다 베어지고, 울타리는 농촌마을개발사업으로 황토와 돌이 섞인 담과 기와지붕으로 바뀌었다. 마치 어느 대감이나 부자가 살던 집 담처럼 만들어졌다. 공놀이와 자치기 따위를 하던 마당은 주차장이 되었고, 사랑채가 서 있던 자리는 손질을 하지 못한 남새밭으로 남아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언제나 열 사람 남짓 식구들이 함께 살던 그 집에는 칠십대 후반을 넘기는 숙부와 숙모 두 분만이 객지에 나가 사는 아들딸들과 손주들을 그리워하면서 산다. 두 분 다 연로하시지만 풍으로 쓰러진 뒤 등록장애인이 됐다. 조금 남은 밭은 다른 사람이 빌려서 포도농사를 하고, 집 앞에 있던 논은 큰 길을 내는 데 들어갔다.

내 고향집도 내 어렸을 때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고 사라졌다. 다만 눈을 감고 그려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몇 발자국이요, 어느 구석에서 어떤 풀과 꽃과 나무와 나뭇잎이 자라고, 어떤 벌레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자세히 기억할 수 있다. 실체들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운 고향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모든 것이 변하는 데 고향만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욕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렇게 고향은 파괴해 진 것인가?

### 문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곳

이렇게 농촌은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보면 이렇다. 농가인구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1980년 이후만을 보면 28.9%(1980년), 15.3%(1990년), 8.7%(2000년) 그리고 7.3%(2005년)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5년 현재 농가 수는 8.1%로 그들이 농사를 짓는 농경지는 1965년에 비해 2.7% 감소하였다. 물론 이 중에는 농사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지만 농경지로 등록된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수치는 좀 더 정확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경기도지방과 대도시 주변에서 사라진 농경지의 수가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더 많은 농경지가 사라졌을 것이라 본다.

농어촌의 인구구성이 크게 달라졌다. 행정 편의상 읍과 면으로 구별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05년에 0세에서 14세까지는 9.8%요, 15세에서 64세까지는 61.1%며, 65세 이상은 29.1%다.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현실이지만, 앞으로 이 지역을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노인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노인이 많다보니 전통농업이 해체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논과 밭의 일을 하는 수는 매우 현저하게 낮다. 그 대신 60세 이상자들 중에서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젊은 사람에게 위탁하는 수가 많다. 경운기를 위탁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은 69.5%, 이앙기를 소유하고 있는 이에게 위탁하여 모내기를 하는 율은 68.1%, 그리고 수확 역시 64.1%가 위탁한다.

농촌에서 사는 청장년들 중에서 결혼할 수 없어서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많아졌다. 특히 남자 청년의 경우에는 결혼할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한 동안은 지역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주선하여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때 시골의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라고 웃었다. 그 중매결혼운동은 별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농어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여인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농어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덤벼들지 못하고, 그곳을 아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농어촌을 회피하였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도시로 나가지 않고, 시골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농어촌을 지킨 공로자들이다.

그런데 바라지 않는,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강제독신생활’을 하는 남성 청장년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되었다. 이 때 나타난 것이 다른 나라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일이었다. 이 문제는 참으로 쉽게 말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다. 한국의 여성이 피하는 그 자리에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 여성들로 채워진 것이다. 농어촌사정도 모르고 우리의 문화도 낮선 그들이 심하게 말하면 ‘팔려’오다시피 한 혼인을 하여 왔다. 서로가 사랑하거나 이해를 한 뒤에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주 원초적인 필요에 의하여,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혼인한다.

2005년 한 해만 농어촌에 사는 남자 중에서 결혼한 수가 8027건이다. 그 중에서 35.9%에 해당하는 2885건이 ‘국제결혼’이라는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이 없으면 농어촌에는 새로운 젊은 여성의 기운이 불지 않고, 그들이 생산하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아이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곳이 많다. 그들이 꺼져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활력소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룬 가정은 연 판매가가 500만원을 밑도는 영세 농어가라는 사실이다. 그 수는 51.7%나 된다. 물론 이들 모두가 다 다문화가정은 아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이룬 대부분은 영세가구에 속한다. 남자 배우자와 연령차이가 많은 것이 보통인 이들의 가정 생활은 삼중 사중의 장애를 안고 살게 한다. 이것이 우리 농어촌의 약점이다. 위기다.

그런데 바로 이 약점과 위기가 강점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농어촌은 비록 마을단위로 볼 때는 좁은 곳이고 작은 곳이지만, 생활 단위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문제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중 인력문제, 교육문제, 다문화와 새로운 농어촌문화 문제, 그리고 도농교류 문제 따위의 4가지만을 골라서 생각하여 보려고 한다.

### 농어업인력 확보

농어업품목 개발이 필요하다. 농어촌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에게게만 맡겨 둘 수 없을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 전통방법으로 그 지역에 살고 농사와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의 자연스런 삶으로 농어촌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달라졌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종사인구가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에다, 농어업노동력을 갖춘 청장년층은 매우 적다. 지금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농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고기잡이 할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닌 허수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농어업정책과 농어촌정책을 근본부터 새롭게 살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되는 위탁농사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농어업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대체군복무제도를 확립할 것을

제안한다. 상당히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라서 집총을 거부하거나 징집을 거부한다.

사실상 현재는 군 인력이 남는 편이다. 이 때 농어촌에서 농사와 어로작업에 복무할 수 있는 길로 터주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농어촌에 젊은 인력이 확보된다. 그들 중에는 복무를 마친 뒤에 다시 농어촌에서 자신의 생업을 찾을 사람도 상당한 수가 나올 것이다. 동시에 이들이 복무하는 동안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력 관리와 동시에 농어업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농어업체계는 달라질 것이다.

집단 농장식의 경영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농어업계획에 맞는 인력을 투자하되, 그 지역의 전통과 특색에 맞는 것을 집중하여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때 그 지역의 전통농어업을 하는 분들과 긴밀한 협의체계 아래에서 이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때 물론 농어업을 체험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체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체험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농어업을 알고 익힐 수 있는 깊은 차원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 문제

농어촌의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일단 교육 대상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여도 효과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적절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점을 강점으로 잡아 새로운 교육을 농어촌에서 실험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의 창조력 발휘를 위하여 시골기숙 학교 따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우수한 고교를 집중하여 육성한다든가, 방과 후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수준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

이다.

농어촌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투자우선지역을 설정하여 지원한다는 것도 계획에 서 있다.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며, 다목적실, 특별실, 어학실, 장학금 지원 따위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졸업한 뒤에 아주 좋은 농어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지도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아교육을 공교육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거나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계획 중이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학교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하여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를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원과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관주도가 아니라, 현지에 있는 주민과 그러한 교육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되,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침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 때 교육주체들의 자율활동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 때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도시의 인구를 시골로 유인하는 길이 잘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하는 경우의 반대 개념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유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농촌문화

농촌문화를 새롭게 창조하고 정리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다문화

가정과 고령화가정이 생기면서 농촌의 인구구조와 생활문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다문화가정이 우리의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현실이다. 산뜻한 젊은 여성들이 우리 지역으로 새로 들어옴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다양하고 많다. 그러나 그들과 그들이 나타남으로 생기는 단점만 표면으로 떠오른 뿐 아직까지 그것들의 강점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 상당히 많은 산뜻하게 결혼하여 온 그분들 중에 아주 비극스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는 너무 자주 들리는 바다. 얼마나 한스럽고 원망스러우며 부끄러운 이야기인가? 어느 가정이든 가정 내의 티격태격은 있다. 그러나 인종과 인간을 무시하는 정도의 억압이라면 엄히 정리해야 할 문제다.

농어촌의 다문화가정 문제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한 층 높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쓸데없는 단일민족 우월감 같은 열등의식을 극복하여야 한다. 원래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할 수 없이 이미 섞인 종족이다. 그러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인종차별의 현실을 가져다주었다. 그것도 특히 유색인종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아주 치사한 차별의식과 대우는 아주 빠른 시간에 사라져야 할 일이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을 인간다운 가정으로 승화시킬 방법이 나와야 한다. 외국으로부터 혼인하여 오는 분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를 바라는 만큼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익히며 우리 사회에 퍼지게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동시에 다문화가정의 식구들은 들어온 그분들의 문화에 접근하여 동화할 수 있는 매우 탁월한 자연스런 조건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곳 식구들과 고향의 식구들이 교류하고, 이 지역과 고향의 지역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국제관계와 글로벌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은 매우 탁월한 새로운 문화창조의 발상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 눈만으로 타인을

볼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타인 자신과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할 것이다.

## 도농교류

동시에 고령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  
다. 노인 역시 우리 사회가 쓰고 버릴 폐품이 아니라, 귀한 정신이요  
삶의 지혜라는 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인은 사회의  
폐기물처럼, 더 이상 효용가치가 떨어진, 다만 죽는 날까지 관리하고  
정리하여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친 면이 많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또 농어촌의 사양화하는 사업과  
생활문화와 마찬가지로 부정요소요 약점만을 부각시켜왔다. 그러한  
관점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농어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곧 재정  
투자를 통한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지역과 존재로만 여기게 됐다.  
즉 수동존재로만 여겼던 것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농어촌을 관광지나 간단한 체험 장소로만 여기는 것이 아  
니라, 삶의 중요한 한 마당으로서의 휴식처요 피폐한 도시의 삶을  
신선하게 할 허파와 같은 적극장소로 개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도농교류라는 것은 단순히 도시가 농어촌에게 은혜를 베푸는 형식이  
되는 것은 곤란하단 말이다. 그러므로 농어촌은 농어촌의 본래의 모  
습이 살아 있는 삶의 모습, 문화양태, 자연경관을 그대로 두어야 한  
다. 지나친 도시화 개념의 농어촌 개발이란 발상은 달라져야 할 것이  
다. 있는 그대로가 좋은 농어촌의 모습에 삶의 편리, 지나치게 찌들린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진통하는 농어촌을 살리는 길은 약점을 강점으로, 낙후된 것  
을 선진한 것으로, 느린 것을 새로운 진보의 걸음으로, 폐기되는 것들  
을 재생의 것으로, 획일화한 도시에 대한 다양한 시골의 모습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주민이나 정부 당국이나 그 사회를 개선  
하려는 세력이 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진통하는 오늘의 농어촌의

모습은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창조 의 모습이라 볼 때 새 길이 열릴 것이다. 農校



이농하여 떠난 폐농가의 모습